

(甲京觀製圖)

(A) 方形으로서 二層基壇上의 三層塔인바 新羅石塔의 典型樣式을 模하였다. 各部의 細部는 아니보이고 塔頂에는 露盤과 六角刹柱가 놓여있을 뿐인데 下底에는 圓錐形深孔이 있고 全體에 胡白粉이 두껍게 덮혀 있다. 土質은 灰黑色이며 堅緻한 燒成에 의하였다. 韓弼東氏舊藏인 바 이와 同大의 遺例二點을 서울 李洪根氏가 所藏하고 있다.

(B) 方形三層塔으로서 單層基壇의 中石을 兩隅柱以外에 撐柱二本으로 區分하고 있음은 新羅統一期의 石塔과 同一하다. 各層屋蓋는 二~三段의 層級形받침을 갖고 있으며 塔身에도 隅柱와 塔身받침 一段을 새겼는데 相輪部는 큰 露盤을 보일 뿐 그 以上은 缺失하였다. 土質은 赤褐色인바 一面이 扁平하고 彫刻이 없음에서 博佛같은 곳에 附着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全靈弼氏所藏(本紙一四、秦弘燮氏「慶州出土三尊博佛의 또한例」參照)

(C) 方形으로서 基壇은 一段을 이루고 第一塔身만은 長大한데 그 四面에 長方形 龕室을 마련하고 蓮座上의 座佛各一軀를 새겼으며 佛身에는

二重輪光形의 光背가 보인다. 屋蓋와 塔身은 遞減되었고 現在 三層이며 頂上에 徑約 1cm의 圓孔이 있어 下底까지 貫通되었다. (刹柱의 偶意로 보인다) 全體에 塗白粉한 痕跡이 보이니 심한 洗滌으로 四方佛은 磨損되었으며 土質은 灰白色으로 砂粒이 混在하였다. 慶州 芬星寺塔에서 비롯한 博佛系를 模한듯한데 慶州 月城址出土로서 同地 昔庸湜氏에 의하여 서울大博物館에 寄贈되었다. (慶州博物館에 月城附近出土의 初層四面佛의 遺品이 하나 陳列되어 있다).

(D) 方形으로 單基上에 五層의 屋蓋가 重疊되었는데 추너는 짧으며 塔身은 없고 다만 區劃線이 있을 뿐이다. 塔頂과 下底는 平坦하며 土質은 淡灰色으로 一部에 黑色이 남아있는데 (C)와 同系樣式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韓弼東氏舊藏)

(E) 方形의 多檐形層塔으로서 各層의 樣式은 同一하며 急峻한 屋蓋面을 보이는바 塔身으로서 層間에 單條의 帶線같은 것이 둘러있을 뿐이며 最頂은 角錐形을 이루고 있다. (但 大形의 上二段은 別個의 것인) 土質은 赤褐色이며 下底에는 큰 圓孔이 깊게 파져있다. 이 같은 類品은 國博에도 所藏되어 있다. (高橋健自·石田茂作共著「滿鮮考古行脚」一〇三頁 插圖十四「朝鮮의 土塔」參照)

(F) 二層의 圓塔形으로서 初層塔身은 整齊하지 못하나 八面을 이루었으나 屋蓋는 圓形에 가깝다. 下底는 거의 方形인바 內灣되었고 頂上은 缺失되었다. 土質은 赤褐色인데 小品이나마 그 樣式은 注目할만하다 韓弼東氏舊藏(石田茂作:「土塔」就て「考古學雜誌」十七卷六號의 第二圖「朝鮮의 土塔」ⅦⅧ의 平壤 및 慶州出土의 圓形塔參照)

### 榮州 黑石寺의 石造佛像

秦 弘 燮

榮州郡 伊山面 石浦里 泉谷에 新築한 黑石寺가 있고 그 後面 岩石에



磨崖三尊像의 彫刻

되었으며 그 앞에 세멘트로 壇을 모으고 石造 如來座像을安置하였다. 磨崖像과 如來座像과는年代도 다를뿐 아니라何等 關聯이 없다.

磨崖三尊像은 높이 五·七 m 넓이 三·二 m 의 岩石에 彫刻되었는데 胸部以上은 比較的 잘 남아 있으나 下部는 원래의 彫刻도 모호할뿐 아니라 그 後에 磨滅되었고 더우기 如來座像을 安置하기 爲하여 세멘트壇

을 設置하는 바람에 묻혀 버리고 말았다. 本尊은 現高約 三·一 m 이며 頭高 一·一 m 고 顔幅 〇·九 m 이어서 거의 正四角形을 이루는 넓직한 얼굴이 되었다. 머리는 素髮이고 큼직한 肉髻가 있으며 兩耳는 어깨까지 늘어졌다. 눈은 俯眼하였고 코는 比較的 적으며 입은 一字로 다물었다. 넓이 一 m 의 兩肩은 치켜올린듯 하며 목에는 三道가 희미하게 보인다. 가슴에서 兩菩薩의 턱에 걸쳐서 橫裂된 關係로 手印 衣紋이 똑똑치 않으며 이 部分부터 下部는 彫刻自體가 不分明해진다. 法衣는 通肩인듯하며 鮮明하지 않은 圓形頭光의 輪廓이 보인다. 兩脇侍菩薩은 本尊뒤에 서 있으며 모두 圓形頭光이 있고 三面冠을 쓰고 있다. 눈이 가늘고 콧날이 섰고 두 귀가 길다. 像高約 二·七 m 頭高約 八·七 m 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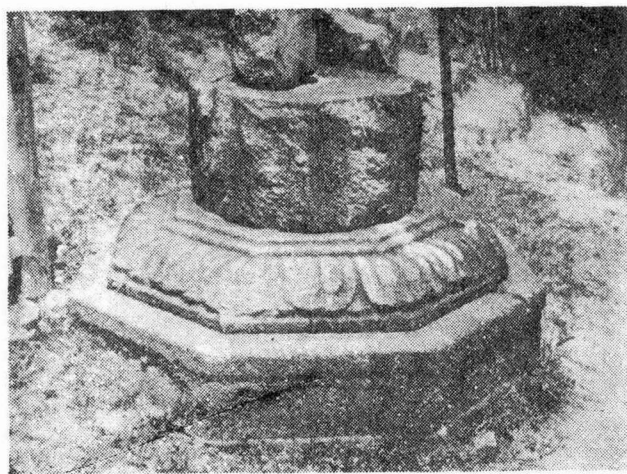
顔幅은 右脇侍에 比하여 左脇侍가 넓게 表現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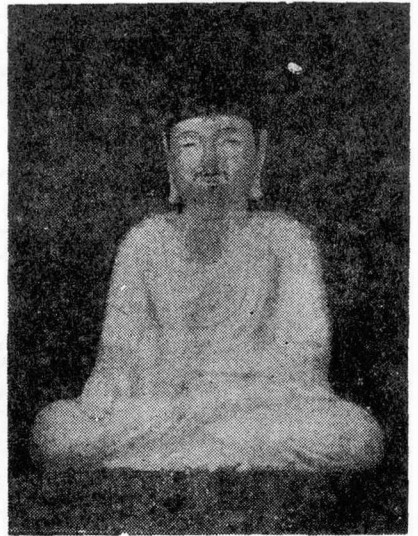
이 岩石의 兩端은 兩菩薩像의 一部를 가리면서 세멘트로 圓柱를 세우고 그 위에 本尊의 頭光頂部에 걸쳐 屋蓋를 亦是 세멘트로 만들어서 덮어 놓았다. 이러한 施設은 彫像全貌를 볼 수 없게 만들었을뿐 아니라 環境에 調和되는 自然美를 損傷시키고 말았다.

이 三尊像 앞에 安置한 如來座像은 原來 이 附近에 埋沒되었던 것을 發掘한 것이라 한다. 全面에 白色胡粉을 塗裝하고 眼眉口唇과 手臑을 靑色紅色으로 그렸다. 螺髮인 머리에 큼직한 肉髻가 있고 귀는 크며 顔部는 比較的 整頓되었다. 목에는 三道가 희미하며 法衣는 通肩이다. 衣紋은 比較的 얇으며 手印은 降魔觸地印인듯하나 左手에 무엇인가 없었던 듯한 痕跡도 보인다.

이 如來像 옆에 亦是 地下에서 發掘하였다는 臺座와 光背가 있다. 臺座는 上臺石을 缺하였다. 上下八角으로 되었는데 地臺石 各面에

는 眼象이 一區씩 裝飾되고 伏蓮石에는 複瓣蓮花 八葉이 있는 위에 二段의 물딩이 있어 身部를 받고 있다. 身部 各面에는 무슨 彫刻이 있었던 것 같으나 磨損이 甚하여 分揀하기 힘들다.





地에는 飛雲文이 있다. 身光에는 上部에만 兩側으로 飛雲文이 있을뿐이  
며 兩光周緣에는 火焰文이 陽刻되었다.

東國輿地勝覽에 黑石寺는 「在府南十五里」라고 있어 方向이나 距離가  
符合되는 點으로 보아 傳稱되어 오던 寺名을 그대로 踏襲한 듯하나 黑石  
寺의 由來에 對하여는 分明하지 않다. 如何든 磨崖石佛은 羅末麗初의 作  
이며 如來座像도 臺座의 上臺石과 光背의 缺失部分이 이 附近에 埋沒되  
어 있을 것이므로 이것을 찾는다 면 完形을 이룰 것이고 그 製作도 新羅  
下代로 推定되는 黑石寺는 그 由來가 相當히 오래지 않았나 생각된다.

- 如來像高 一·六m 膝幅 一·三m
- 臺座現高 〇·九m 地臺石一邊 〇·六m
- 光背大片現高 一·一m 頭光徑 一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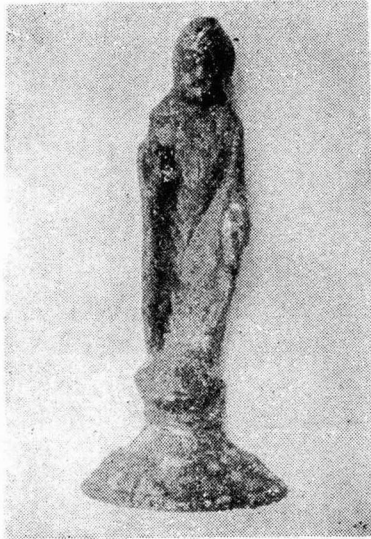
### 公州 西穴寺址出土의 金銅如來立像

金 永 培

邑에서 西穴 약 一km 熊津洞 日落山中腹에는 百濟의 西穴寺址가 洞窟  
과 함께 남아 있다. 一九六〇年 이 寺址에서 樵夫에 의하여 小佛一軀가

光背는 二片이 남  
아 있으나 大體의  
形態는 알 수 있다.  
原形은 舟形인 듯 하  
며 頭光과 身光을 二  
條의 陽刻線으로 區  
分하였다. 圓形頭光  
안에는 약간 아래로  
큰 子房周圍로 單瓣  
蓮花 八葉이 있고 間

發見되었는데 優品은 아니라 하더라도 公州出土의 遺例가 매우 稀貴하  
기에 간단히 紹介한다. 圓形蓮座위에 正面直立한 如來像으로서 身臺에  
는 鍍金의 痕跡이 歷然하며 곳곳에 靑綠鏽가 보인다. 手印은 與願(三指  
垂下)施無畏(五指現掌)의 通印으로서 法衣는 通肩이나 鑄造가 精巧치 못  
하여 衣褶이 分明치  
않다. 다만 胸下에  
小突起가 있어 본시  
裳衣의 結紐를 表示  
한 듯하며 兩手に 걸  
친 法衣는 특히 右  
側에서 二段으로 鎊  
게 垂下되어 있다.  
頭上의 肉髻는 아주  
작은 편이며 素髮로  
서 相好는 작고 등골이 童顔에 가깝다. 白毫孔이 있고 兩眼은 杏實形으  
로 큰데 比하여 口鼻는 작은 편이며 兩耳는 半月形으로 겨우 짐작될 뿐  
이다. 臺座는 半圓廣底의 所謂 白形으로서 伏蓮座에는 周緣을 連珠帶로  
하여 單蓮四瓣이 陽刻되었고 그 위의 좁아들은 마디에는 圓帶一條가 돌  
러 있으며 頂上의 圓形足座上에는 兩足은 아니 보인다. 身臺가 全鑄되  
었는데 梯形의 斷面을 보이며 頭後에서 臺下까지 平面을 이루었다. 따  
라서 佛身背面에는 아무런 彫紋이 아니 보인다.



以上과 같은 各部의 樣式이나 鑄成의 手法에서 미루어 매우 高古한  
作品으로 推定되며 아마도 百濟公州都邑期인 西紀六世紀頃의 遺作으로  
보아 貴重한 資料가 될 만하다. (全高 七·四cm 身高 五·五cm 臺高一·  
九cm 臺徑 三·二cm)

(附記) 公州博物館에는 日帝時 同郡 鷄龍面 新基里 陵岩寺址(傳百濟創建)

에서 出土된 靑銅如來立像一軀(臺缺)가 陳列되고 있어 此品과  
比較되어야 할 것이다.

(註) 이 佛像과 身部나 臺座의 樣式 또는 크기가 거의 같은 金銅立佛一